

FTA 확대 “합성수지 수출 위협적”

KOTRA, 일본기업 멕시코 진출 가속화 ... 타이어 · 플라스틱 수출 타격

일본과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일본기업들이 멕시코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한국의 시장상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FTA가 발효되면 일본의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과 한국제품의 관세율 차이가 13-18%p 벌어져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OTRA는 “멕시코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FTA 체결로 관세혜택과 안정적인 부품공급이 가능해지자 멕시코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지투자를 잇따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다와 닛산은 멕시코에 각각 1억4000만달러와 6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멕시코 티후아나의 일본 전자기업들도 일반TV 생산설비를 플라즈마, PDP TV 설비로 잇따라 전환할 계획이다.

일본기업들은 또 멕시코가 2003년부터 플랜트 건설 등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FTA 체결국으로 제한함에 따라 유리한 조건에서 정부조달 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본-멕시코 FTA에 따른 한국의 멕시코 주요 수출상품 영향 분석

구 분	단기적 피해(2005-2006)			중장기적 피해(2007~)		
	상	중	하	상	중	하
타이어	○			○		
자동차부품	○			○		
플라스틱(합성수지, 시트, 필름 등)	○			○		
기계(금형)	○			○		
전기(발전기, 음극선관, 영상기록기기 등)	○			○		
플랜트, 정부조달	○			○		
철 강		○			○	
가 전		○			○	
자동차			○		○	
휴대폰			○		○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상품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 타이어는 이미 2004년 1월부터 평균관세율이 2배 이상 높아져 일본제품과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멕시코 수출액이 1000만달러 이상으로 일본산의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또는 상실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합성수지, 플라스틱판, 시트 및 필름류, 금형, 발전기, 음극선관, 영상기록기기 등으로 분석됐다.

해당 품목들은 한국산은 평균 관세율이 13-23%를 적용 받는 반면, 일본산은 FTA 발효 즉시 0세율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인하가 예상된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5/06>